

생명윤리와 개신교의 종교교육

- 개신교 생명 윤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

송 용 섭

연세대학교

〈요 약〉

본고는 학교에서 종교 교육시에 개신교의 생명윤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신교 생명 윤리학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때, 개신교내에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있음을 고려하여, 본고는 개신교적 입장을 칼빈주의 신학으로 제한하여 서술하였다. 특별히, 생명 윤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칼빈주의신학의 주요 요소로서, 본고는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하나님과, 성서의 권위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택 및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학에 바탕을 두어, 개신교는 성서 자체에서 생명에 대한 규범과 당위성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명의 의미와 존엄성의 근거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사역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된다. 이러한 개신교의 이해속에서 생명 윤리적 이슈에 적용 가능한 보편 원리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생명 윤리적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시에는 해석의 다양성 문제와 보편화 과정속의 개신교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이 세상에 나아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개신교 신앙과 성서에 대한 교제 속으로 세상을 초대하고 이러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신교의 생명 윤리 교육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신교 생명윤리적 교육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르는 효과적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신교 생명윤리 교육은 학교 현장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적 가치관에 의해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생명, 칼빈주의, 개신교 교육, 사랑, 생명윤리

* 이 논문은 2014년 5월 16일 카톨릭 대학교 성심 교정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현대 과학과 이성의 발달은 생명에 대한 논의들을 더 이상 종교의 영역에 머무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현대의 과학과 철학은 생명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해석 없이도 생명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교의 문제제기와 오용에 대한 경고는, 마치 뒤르카임의 예견대로 금지된 영역에서까지도 주인이 되어버린 과학에게 이미 빼앗겨버린 과거의 헤게모니를 되찾아보려 노력하는, 불필요하고 무기력한 옛 세력의 불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¹⁾

세속의 철학과 과학이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무장하여 생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²⁾과도 같은 새로운 생명 이해와 윤리적 상황을 제시하는 가운데, 개신교는 생명 존중을 위해 어떠한 근거와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혹은, 과연 개신교는 생명에 대한 세속적 이해와 주장에 대해 생명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개신교적 생명 이해는 생명 존중을 위한 종교 교육에 있어 어떠한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기에 앞서, 필자는 먼저 개신교적 생명 윤리를 언급할 때의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연 개신교란 무엇이며, 개신교는 생명 윤리적 이슈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치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데 있어, 장로 교인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필자가 지닌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필자는 개신교적 입장을 말할 때 개신교의 다양한 종파중에 한국 개신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³⁾ 특별히, 칼빈주의 내에서도 사회정치적,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칼빈주의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 내에서 생명 윤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요약 선택하여 공통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명 윤리적 논쟁에 대한 종교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개신교 신학의 특징: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생명 윤리학적 이슈들에 대한 현대 세속 학문들의 대답은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1) Emile Durkheim, 노치준 외 옮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590-592쪽.

2) Peter 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4), p.189.

3) 따라서, 본 논문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한 개신교와 칼빈주의를 상호 교환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채 상호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속적 생명 윤리학은 이성에 근거하여 생명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쳐가지만, 특정 이슈들에 대해 확실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각자의 윤리적 입장이 자신들이 속한 독특한 공동체와 개인적 선호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먼저 이들 각자의 전제와 원칙과 가치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⁴⁾ 세속적 주장들의 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생명과 그 가치에 대한 보편적 주장의 근거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합리성을 동반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신학적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찾는 것 역시 쉽지 않다.⁵⁾ 따라서, 생명 윤리적 이슈에 관해 법과 정책과 같은 사회적 제도에 반영되는 세속 과학과 철학의 주장들은 실효성을 담보로 하나 그 주장의 당위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반하여, 개신교적 입장은 생명 윤리적 담론과 교육에 필요한 보편적 규범을 당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이를 위하여는 먼저 해결해야할 선행적 질문 사항들이 있다. 첫째, 개신교 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며 각 분파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에 적용가능한 공통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이에 바탕을 둔 개신교적 생명 이해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먼저, 마틴 루터(1483-1545)는 중세 교황청의 교회 전통에 대항함으로써 개신교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그의 신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의 사상은 “오직 믿음”(sola fide)과, “오직 성서”만을(sola scriptura) 통한 구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만인 제사장설”이 주요 특징을 이룬다.⁶⁾ “오직 믿음”이라는 사상은 인간이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만 구원받는 것이지, 성례전과 같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이다. “오직 성서”만을 통한 구원은 성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으로써 읽는 이가 성서를 이해할 수 있고 교리 판단의 최우선 권위가 교황이 아닌 성서에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만인 제사장설 (벧후2:9)”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제사장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서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⁷⁾ 성서 해석과 권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상은 교리나 제도나 성직자가 지닌 권위를 타파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성서 해석권을 주었으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서의 권위를 최우선적

4) Ryan R. Nash, “Calvinism, Reformed Protestantism, and Bioethics: Are the Controversies Predestined?”, *Christian Bioethics*, 20(1), 2014, p.124.

5) 같은 글.

6) J.H. Hayes C& F. C. Prussner, *Old Testament Theology: Its History and Development*, (SCM Press Ltd, 1985), 10-12. 재인용. 노회원, 『구약성서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사상』 『신학논총』 제4권(서울: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8), 181쪽.

7) 위의 글, 182쪽.

고 최종적이며 객관적 권위의 실체로 올려놨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사상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즉, 그의 사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서 해석권을 주었기 때문에 성서 자체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⁸⁾ 루터는 이의 문제를 같은 정경이지만 본문 상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본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에 따라 다른 본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⁹⁾ 한 번 개인에게 양도된 성서 해석권은 이같은 루터의 기준에 상관없이 다양한 성서 해석의 길을 열어놓았다.

루터 이후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1509-1564)은 예정설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모든 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경만”(Scriptura tota: Scriptura sola) 나타내려 하였다.¹⁰⁾ 그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신학 사상을 요약하여, 후대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주창하기도 하였다.¹¹⁾

칼빈의 신학의 교리적 근거는 오직 성서에 있다.¹²⁾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 “성서의 권위는 교회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인되며, 교회는 성서 위에 세워진 것이다.¹³⁾ 성서의 권위와 성서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서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어야 하며, 오직 이를 통해서만 성서가 절대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그에 따르면, 성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권위를 인정받고 우리 마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¹⁵⁾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기 전에는 성서의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성령이 믿음을 굳게하는 보증이 되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직접 비춰주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에 따라서 인간의 양심에 의해 성서를 해석하게 된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신학 역시 성서에 대한 확일적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성서 자체가 지닌 최우선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에 대해 최우선적 권위를 부여하는 개신교 신학의 주요 신앙 요소들을 요

8) 같은 글.

9) 같은 글. 예를 들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롬 1:17)를 다른 성서의 기준으로 여겼다면,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약 2:17)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여겼다.

10) Edwin H. Palmer, 박일민 옮김, 『칼빈주의 5대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7), 8쪽.

11) 칼빈주의 5대교리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 TULIP이라 불린다. 이는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을 나타낸다.

12) John Calvin, 고영민 옮김, 『기독교 강요』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2006), 41쪽.

13) 위의 글, 173, 175쪽.

14) 위의 글, 173쪽.

15) 위의 글, 173-181쪽.

16) 위의 글, 41, 181쪽.

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신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영원한 생명, 값없이 주시는 은혜, 만인 제사장설, 삶의 방향과 지침의 최우선 요소로서의 성서 등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 요소가 된다.¹⁷⁾

이 중에서, 생명윤리에 적용하기 위한 개신교 신학의 주요 요소를 선택하자면, 첫째,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절대적 주권을 지닌 하나님이 강조된다. 칼빈은 하나님이 모든 현상들 뒤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의 의지를 성취하고 계시다고 믿었고, 모든 삶의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께 경건히 기도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맡겼다.¹⁸⁾ 흔히, 칼빈주의 신학의 주요 요소를 예정론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칼빈주의의 시발점이 아니라 논리적 결과인 것이며, 윤리적 이슈들에 직면하여 인간의 책임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책임에 선행하여 생각한다.¹⁹⁾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은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할 지라도 생명을 주시고 다시 취하시는 일에만까지도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루터에서 기인한 다양한 성서 해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신학은 계시된 말씀으로써의 성서의 권위를 강조한다. 생명윤리적 관점을 적용해볼 때,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목적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아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번성과 영원한 생명의 소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권위적 규범이 되는 것이다.²⁰⁾

셋째,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표현되는 죄성이 강조된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믿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칼빈주의 신학에서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상대적 선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해도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이 아니어서 인간은 “결코 근본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다만 항상 악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극적 의미로 “전적 무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²¹⁾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

17) Merril Pauls and Roger C. Hutchinson, “Bioethics for clinicians: 28. Protestant bioethics,” *CMAJ*, 166(3), 2002, p.340.

18) J.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6th ed. Revised by P. Marschall.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1990. p.19. 재인용. Jon C. Tilburt and Katherine M. Humeniuk, “Reframing the Reverence of Calvinism and the Reformed Tradition for 21st Century Bioethics,” *Christian Bioethics*, 20(1), 2014, p.16.

19) 같은 글.

20) 같은 글.

21) Edwin H. Palmer, 11-19쪽.

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주는 호의”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으며, 인간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²²⁾ 특별히,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역사케 하시면 그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죄악에서 선한 사람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와 유일한 길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Ⅲ. 개신교적 생명 이해

지금까지 칼빈주의를 중심으로한 개신교 신학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저자는 생명 윤리에 적용 가능한 개신교적 생명 이해를 다음과 같은 틀 속에서 주장하려 한다. 먼저, 개신교는 성서의 최우선적 권위를 인정하여 성서 자체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엄성의 근거를 찾는다. 즉, 성서학적 생명 이해는 개신교와 카톨릭에 상관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개신교는 이성이나 교리나 교회 전통이 아닌 성서 자체에서 생명에 대한 규범과 당위성을 발견한다. 또한, 개신교는 생명을 독립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이해한다. 개신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듯이 자연과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의미가 규정되고 존엄성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²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드러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 사역은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또다른 근거가 된다.

1. 성서에서의 생명

개신교의 생명 이해와 생명 윤리에 있어서, 성서는 자연법이나 교회 전통에 앞서는 최우선적 판단 근거가 됨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성서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다수의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들을 찾아 그 용례와 의미를 유사하게 분석하였다.²⁵⁾ 그런데, 이들의 성서적 생명이해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등의 신학적 입장과는 큰 상관없이 유사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

22) 위의 글, 98쪽.

23) 같은 글.

24) 박충구, 『현대 기독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7권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0), 265쪽.

25) 본고가 인용한 김영남, 장홍길, 노희원, 한미라의 글들을 참조할 것.

어, 장로교 신학대학의 장홍길은 『생명 나눔의 성서신학적 근거 대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성서에 나타난 생명』에서, 구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주로 ‘하임’과 ‘네페쉬’가 있는데, ‘하임’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물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고 유지되고 보호받는 생명”을 뜻하며, ‘네페쉬’는 “현실에 살아 숨쉬는 ‘목숨’을 가진 인간(생물)을 의미”한다고 말한다.²⁶⁾ 카톨릭 신학대학의 김영남 역시 『그리스도교의 생명 이해』라는 논문에서, 하임, 네페쉬, 루아흐, 너사마²⁷⁾를 소개하며, 창조신학에서는 생명이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밝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지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귀한 존재이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생명체들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²⁸⁾

한편, 장홍길에 따르면, 신약에서 ‘생명’이란 용어는 ‘구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²⁹⁾ 신약 성서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유대교에서처럼 지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생명(조에)을 소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점을 진술한다.³⁰⁾ 바울은 생명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다고 이해하며,³¹⁾ 요한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시면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김영남 또한 신약에서는 프쉬케와 조에³²⁾가 생명의 뜻을 나타내는데, 예수의 종말론적 선포는 “하느님 나라” 혹은 “생명(조에)”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향했으나, 이렇게 현세의 생명(프쉬케)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프쉬케)을 초연하였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³³⁾ 이후, 바울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신다고 이해했으며, 요한 복음서에서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에 선물로 주어지며,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26) 장홍길, 『생명 나눔의 성서신학적 근거 대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성경에 나타난 생명』, 『장신논단』 제30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7), 117-118쪽.

27) 김영남, 『그리스도교의 생명 이해: 성서신학적 고찰』, 『카톨릭 신학과 사상』 제20권, (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1997), 65-66쪽. 이 네 단어들중에 하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네페쉬는 목구멍이나 목이라는 신체기관의 지칭으로서, 생명의 의미로도 쓰이며, 너사마는 숨결을 뜻하고, ‘바람, 영’이라는 뜻인 루아흐가 ‘생명’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힘’이라는 어감이 들어있다. 특히, 숨결로 루쓰인 너사마와 아흐를 통해서 “인간이 그 숨결의 주인인 하느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28) 위의 글, 68-69쪽.

29) 위의 글, 119쪽.

30) 위의 글, 119-120쪽.

31) 위의 글, 122쪽.

32) 위의 글, 75쪽. “‘프쉬케’는 현세의 생명(목숨)을 뜻하고 ‘조에’는 ‘내세에 구원의 선물로 주어질 생명’을 뜻한다”

33) 위의 글, 75-76쪽.

수 있다고 이해했다.³⁴⁾

2.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생명

성서는 생명의 기원이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추론이나,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 해석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볼 때만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전지전능하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서는, 생명을 말할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성 속에서 이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임과 동시에 생명의 소유자이다.³⁵⁾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연속의 생명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대비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

특별히,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성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1:26-27)는 성서의 구절에서 강조된다.³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특별하게 보존되어야만 하고(창9:6), 단순히 이러한 인류 자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⁷⁾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친교를 향해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교의 대상”으로서,³⁸⁾ 인간만이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라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한편, 개신교 윤리학자 폴 램지는 기독교의 전통이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써 자연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⁹⁾ 김균진 역시 “성서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창1:27).⁴⁰⁾ 이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정과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고 있다.⁴¹⁾ 그런데, 생명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위임된 것이다.⁴²⁾ 즉,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이 자연과

34) 위의 글, 82-83쪽.

35) 양명수, 『생명과학과 신학의 대화: 유전공학과 윤리의 근본문제』 『기독교 사상』 제45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33쪽.

36) 김홍진, 『복제인간에서 나타날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 (서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2), 123-124쪽.

37) Stephen Post, “Sanctity of Human Life,” Joel B. Green, ed., *Dictionary of Scripture and Ethic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p.702.

38) 김균진, 『생명의 신학』 (서울: 연세대학교, 2007), 106쪽.

39) Ramsey, *Ethics at the Edges*, 146. 재인용. Scott B. Rae and Paul M. Cox, 김상득 역, 『생명 윤리학』 (서울: 살림, 2004), 49쪽.

40) 김균진, 앞의 글, 103쪽.

41) 위의 글, 104-107쪽.

인간에 생명을 부여했다. 이때, 인간은 단순히 자기 생명의 소유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램지에 의하면, 이렇게 생명을 선물과 위임된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 생명 윤리적 상황에서 인간은 생명 보전과 유지에 대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⁴³⁾ 따라서, ‘선물’과 ‘위임’이라는 은유를 통해 램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재인식함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⁴⁴⁾

한편 제임스 구스타프슨은 인간이 방관자나, 창조의 소유자나, 세상의 전능한 제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닌 전체 세상의 일부라고 말하는데, 개인과 공동체와 자연 질서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 참여자로서의 인간은 종교적 언어로는 청지기라는 용어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구스타프슨은 이 청지기라는 용어 속에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 대해 일시적이지만 책임있게 관리하고 공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⁴⁶⁾ 구스타프슨은 “‘생명은 제2의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생명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심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외심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칼 바르트(Karl Barth)”의 주장을 인용하면서⁴⁷⁾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이해할 때 “물질적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만, 곧이어 “생명은 ‘인간의 가치 및 다른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⁴⁸⁾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며 쉽게 포기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⁴⁹⁾ 인간의 생명 역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상대적이다. 동시에,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은 긍정과 선함과 사랑과 복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42) Ramsey, *Ethics at the Edges*, 146. 재인용. Scott Rae and Paul Cox, 49쪽.

43) 위의 글, 147. “인간이 생명에 대한 위임내지 청지기적 정신을 버리고 반대로 생명을 스스로 지배(혹은 공동 지배)하려 하지 않는 한, 달리 말해, 생명은 선물이요 위임된 것이라는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어떻게 죽음을 허용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의료윤리정책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재인용. 같은 글.

44) 위의 글, 49-50쪽.

45) James M. Gustafson,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s*, Vol.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145.

46) 같은 글.

47) James M. Gustafson, *Contributions of Theology*, 60; James M. Gustafson and Richard Landau, “Death Is Not the Enem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52 (1984): 2485. 재인용. Scott Rae and Paul Cox, 앞의 글, 61쪽.

48) James M. Gustafson, “God’s Transcendenc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Christian Ethics and the Community*, (Philadelphia: Pilgrim Press, 1971), 140. 재인용. Scott Rae and Paul Cox, 앞의 글, 62쪽.

49) 위의 글, 60-62쪽.

은 청지기로서 이의 책임있는 관리와 보전에 참여해야 한다. 즉, 인간은 생명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자연의 생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관리하고 생명을 발달시켜 그 목적을 이루도록 공헌하는 일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⁵⁰⁾ 특별히, 생명에 대한 청지기로서 인간 사명의 강조는 그동안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며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 했던 그동안의 부정적이고 죄된 역사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모든 생명의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의 보존과 생태계를 충만하게 번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의 구현 의무에 속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⁵¹⁾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다른 생명과 비교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의 구속 사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이 아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는 다른 생명들과 구분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드러낸다.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란,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혹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교만을 의미한다.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생명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생명과 같이 되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담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온 죄는 전 인류를 죄속에 빠뜨렸고(롬 3:23), 전 인류는 완전한 죄의 지배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롬 1:18-32).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고 인간의 삶 속에서 질서를 회복했다.⁵²⁾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 폴랑쥐는 『생명윤리와 죄』라는 논문에서 오늘날의 다원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특히, 생명윤리에 대한 어휘와 개념적 자원속에서 죄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으나, 죄의 실상까지 사라져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⁵³⁾ 그에 따르면,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맞닥뜨려야 하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현저한 존엄성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을 말하는

50) Gustafson, "God's Transcendenc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142-43. 재인용. 위의 글, 62쪽.

51) Larry Rasmussen, 이순태 역, 『생명과 자연의신학적 이해: 생명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윤리』 『생명의 신학과 윤리: 기독교와 한국사회』 제5권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1997), 288-230쪽.

52) Jean-Francois Collange, "Bioethics and Sin," *Christian Bioethics*, 11, 2005, p.176.

53) 위의 글, 177쪽.

것으로써, 이는 인간이 신앙 안에서의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 살아갈 때 유지될 수 있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둘 때만이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⁴⁾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죄와 불행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대속될 수 있으며, 기독교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와 싸워야 함을 주장했다.⁵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하지만,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인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⁵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이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 이를 실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으로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롬 8:3-11) 성서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보전에 대한 유일성 및 규범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 생명이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확증한 것이다.⁵⁷⁾

IV. 생명윤리적 상황을 위한 보편 원리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개신교에서 성서는 최우선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주요 이해 역시 이에 기인하지만, 이러한 신학적 태도가 생명윤리적 상황에 대한 성서 본문의 문자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신교 윤리학자 데니스 홀링어는 생명 윤리적 상황에서 성서 본문을 현대 윤리적 상황에 직접 적용하려는 성서 주의적 태도는⁵⁸⁾ 해석학적으로도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연구방식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⁵⁹⁾

54) 같은 글.

55) 위의 글, 175, 181쪽.

56) 위의 글, 177-178쪽.

57) Stephen Post, p.702.

58) Dennis Hollinger, "Can Bioethics Be Evangelical?",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7(2), 1989, p.162. 홀링어의 정의에 의하면 성서주의란 특별히, 성서내의 계명이나 명령과 같은 내용에서 곧바로 윤리적 성찰의 내용이나 연구 방식을 끌어내려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홀링어는 성서의 본문을 현대 생명 윤리적 이슈에 직접 적용하기 보다 성서에 기반을 둔 원칙들과 신학적 성찰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⁶⁰⁾ 그는 이러한 성서적 원칙이 인간의 가치가 적어도 특정한 수준에 도달가능한 관계성이나 이성 등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적 존엄성 개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질에 의해 외적으로 부여된 존엄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⁶¹⁾ 또한, 그에 따르면, 신학적 성찰이란 성서의 금칙이나 원칙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들보다 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⁶²⁾ 이는 성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성서의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인데, 이는 “창조, 타락, 구속과 종말이라는 성서의 지배적 이야기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⁶³⁾ 하지만, 신학적 성찰 역시 적용가능한 규칙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거나 도덕 행위를 즉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향과 한계를 제공하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성서 신학적 원칙들 중에 생명 윤리적 이슈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원칙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이며 보편적인 성서 신학적 원칙은 사랑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며, 다수의 윤리학자들 역시 사랑을 기독교의 핵심 원리로 규정한다.⁶⁵⁾ 이때,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59) 위의 글, 162-163쪽. 그는 생명 윤리적 상황에 대한 성서주의적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밝힌다. 첫째, 성서는 현대의 윤리적 이슈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성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 분석을 방해한다. 둘째, 윤리적 이슈에 성서의 명령이나 규범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때, 성서주의자들은 다른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는 성구들을 심사숙고하기만 하면 구체적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처럼 여겨서 참조하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성구들을 그 구체적 상황에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는 지속적으로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태도는 성서 전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60) 위의 글, 167, 169쪽. 홀링거는 성서적 원칙들을 윤리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성구를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 구체성은 떨어지겠지만 보다 보편적인 윤리적 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이성의 사용을 요구하지만 그 원칙들이 성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61) 위의 글, 168-169쪽. 하지만, 홀링거는 이러한 원칙이 생명 보존을 위해 어떤 댓가도 감수해야 한다는 과도한 생명주의를 말하거나 의사결정시 삶의 질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은 본질상 근본적인 윤리적 원칙이며 이를 증명하는 노력은 항상 생명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62) 위의 글, 169쪽.

63) 같은 글.

64) 같은 글.

65) 사랑을 기독교의 유일한 규범으로 강조한 학자들 중의 선구자는 조셉 플레처(1905-1991)이다. 그는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 성공회 신부이자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성공회 신학교, 하버드 대학 및 버지니아 대학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1966년에 출판한 『상황윤리』라는 저서에서 궁극적인 기독교 윤리적 원리란 사랑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생명윤리학 분야의 개척자로 여겨지는데 오직 사랑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적용 가능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기독교 윤리적 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세상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경험되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시키게 해주는 근원이 된다.⁶⁶⁾

오히려, 생명 윤리적 이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독교 원리를 제시할 때의 어려움은, 해석의 다양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성서 신학적 원리들 중에서 보편화할 수 있는 핵심 원리에 대한 선택 가능성의 여부에 있다기보다, 그러한 성서 신학적 핵심 원리를 타종교와 세속 학문에서 용인 가능한 보편적 원리로 발전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독교적 고유성의 상실 가능성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사랑이란 단순히 보편화가 가능한 자기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성서에 기록된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인정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가 핵심 원리로 삼고 있는 사랑을 엄밀히 말할 때는, 성서에 나타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신앙을 통한 인격적 교제의 가능성과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사역의 유효성에 대한 믿음과 같은 개신교의 모든 신앙 고백이 내포된 사랑을 의미한다.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고유성을 자기 고백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유한 기독교적 원리를 보편적 원리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자기 정체성과 초월적 보편성의 문제들을 놓고 개신교가 취할 수 있는 일상적인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종파주의적 태도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해당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성서로 돌아가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원리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세상이 그 원리의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성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성서신학적 원리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세상과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현실주의적인 태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기독교적 핵심 원리의 고유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변경하면서 공공의 언어로 기독교의 사랑을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원리의 고유성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정되지 않으면, 같은 단어라 해도

리를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66) Stanley J. Grenz,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 Quest for Identity: Toward a Spiritu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Life in Christ,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37(2), 2002, p.98.

세속의 전제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가 세상과의 단절에서 벗어나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유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것이 극단화될 경우에는 적절한 타협이 아닌 고유성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 개신교가 이러한 두 가지 태도가 내포할 수 있는 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세상과 함께 제3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혹은, 세상은 과연 생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속에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개신교의 성서 신학적 원리에 귀를 기울이려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교육 현장과 같은 생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고 토론되는 세상 속에 개신교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근대 교육과 의료의 도입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사실은 한국이 다원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만약, 이렇게 세상의 일부가 개신교의 성서 신학적 원리에 귀기울이려 한다면, 개신교 성서 신학적 원리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이의 보편화는 아마도 세상을 향한 기독교 신앙과 성서에 대한 교제로의 초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진보는 세상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V. 결론: 종교 교육의 방향성

생명에 대한 종교 교육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을 요약하면, 성서에 대한 강조와 해석의 자율성, 전지 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상대성, 인간의 죄성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신교의 입장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지만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생명 윤리적 연구를 금지하거나, 생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편 적용 가능한 해답을 제시 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생명 윤리적 연구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성서 신학적 원리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황과 원리를 해석 및 적용하며 한계를 지키며 나아가갈 때에는 생명 윤리적 연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해야할 청지기적 소명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원리가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심판보다는 용서에 획일적 판단보다는 예외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생명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때의 개신교의 성서 신학적 입장은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의료 관계자와 교육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각각 신실하게 성서의 원칙들과 해당 상황을 해석하며, 청지기적으로 책임있게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개신교는 그 신학적 특성상 생명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혼동이 아닌 일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생명 윤리 교육의 현장에서 그 교육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만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의 생명 윤리적 교육 목적은 성서에 나타난 생명 이해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성서에 드러난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시키고, 인간이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여 선물받은 생명을 존중하고 관리하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개신교적 생명 윤리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인간의 죄(탐욕)에 대한 지속적 경고를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 즉,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의미가 구체적인 생명 윤리적 상황과 다원주의적 한국 교육현장에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고유성이 상실되지 않으면서 보편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다원화된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종교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원리로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면, 개신교의 성서 신학적 원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생명 윤리를 위한 종교 교육 현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한국 사회내 생명 존중 사상과 한국 사회의 성숙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된 이유가 관련자들 및 한국 사회가 지닌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에 있음을 주목할 때, 인류를 사랑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편적 원리로 삼아 이를 실천하며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현 한국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 강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67)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플레처는 이 저서에서 생명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속에서 사랑이 유일한 규범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균진. 『생명의 신학』. 서울: 연세대학교, 2007.
- 김영남. 「그리스도교의 생명 이해: 성서신학적 고찰」 『카톨릭 신학과 사상』 제20권 (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1997).
- 김홍진. 「복제인간에서 나타날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집 (서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2).
- 노희원. 「구약성서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사상」 『신학논총』 제4권 (서울: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8).
- 박충구. 「현대 기독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7권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0).
- 양명수. 「생명과학과 신학의 대화: 유전공학과 윤리의 근본문제」 『기독교 사상』 제45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장홍길. 「생명 나눔의 성서신학적 근거 대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약성경에 나타난 생명」 『장신논단』 제30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7).
- Calvin, John. 고영민 옮김. 『기독교 강요』.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2006.
- Collange, Jean-Francois. "Bioethics and Sin," *Christian Bioethics*, 11, 2005.
- Durkhem, Emile. 노치준 외 옮김.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 Grenz, Stanley J.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 Quest for Identity: Toward a Spiritu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Life in Christ,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37(2), 2002.
- Gustafson, James M.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s*. Vol.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Hollinger, Dennis. "Can Bioethics Be Evangelical?"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7(2), 1989.
- Nash, Ryan R. "Calvinism, Reformed Protestantism, and Bioethics: Are the Controversies Predestined?" *Christian Bioethics*, 20(1), 2014.
- Palmer, Edwin, H. 박일민 역. 『칼빈주의 5대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Pauls, Merril and Roger C. Hutchinson. "Bioethics for clinicians: 28. Protestant bioethics," *CMAJ*, 166(3), 2002.
- Post, Stephen. "Sanctity of Human Life." Joel B. Green, ed., *Dictionary of Scripture and Ethic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 Rae, Scott B. and Paul M. Cox. 김상득 역. 『생명 윤리학』. 서울: 살림, 2004.
- Rasmussen, Larry. 이순태 역. 「생명과 자연의신학적 이해: 생명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윤리」 『생명의 신학과 윤리: 기독교와 한국사회』 제5권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1997).

Singer, Peter. *Rethinking Life and Death: The Collapse of Our Traditional Ethic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4.

Tilburt, Jon C. and Katherine M. Humeniuk. "Reframing the Reverence of Calvinism and the Reformed Tradition for 21st Century Bioethics." *Christian Bioethics*, 20 (1), 2014.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19일 심사일: 201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4일

연구자 소개: 송용섭

- ① 전공: 기독교사회윤리학 / 소속: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강사
 - ② 관심 영역: 라인홀드 니버, 다문화주의, 사회갈등 방지와 교회의 평화적 역할
 - ③ 주요 논저: 「1992년 LA 폭동 속의 제도적 인종차별과 다인종 갈등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 「라인홀드 니버의 죄 개념에 대한 미국윤리학계의 수직적, 수평적 논쟁과 이의 비판적 분석: 한인 이민자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④ E-mail: ysbius@gmail.com
-

Abstract

Bioethics and Religious Education in Protestantism

Song, YongSup

Yonsei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the issues in the Protestant bioethics education in religious schools. In considerations of various theological positions in the Protestantism, the term, Protestantism, is limited to the Calvinist theology in this paper. Especially, som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Calvinist theologies are selected for the applications to the bioethical situations, which are the ideas of sovereign God,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otal depravity of human beings and Jesus Christ as the only way to salvation. Based on this theology, the Protestantism finds the norms and duties for life in the Bible, the meanings of life in nature and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n relation to God, and new understandings of human dignity and life through the incarnation and salvific works of Jesus Christ. Through these Protestant understandings, the principle that may be universally applicable to various bioethical issues and education fields is to be the lov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While there may be some problems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of the identity of Protestantism in the process of universal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 to bioethical situations in the interactions with the secular world, creative alternatives could be suggested by Christians' invitations for the world to the fellowship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Bible and the continuous fellowships living the life of the stewardship nurtured in the Church and sent to the world. For the alternatives, the Protestant bioethical education should set the clear goals for the bioethical education, and develop effective methods to measure the goals. Such Protestant bioethical education w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religious education of students, but also to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here secularism and materialism are prevalent in negligence of the value and dignity of life.

Key Words: Life, Calvinism, Protestant Education, Love, Bioethics